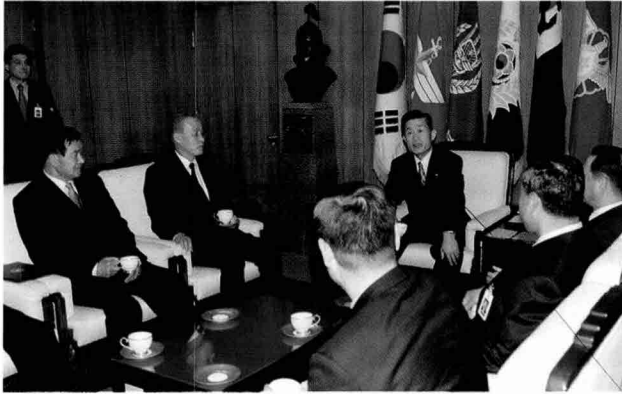


국방부, 연구개발장려금 및 정부포상 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통령 표창 수상



국방 부는 지난 1월 3일 이준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분야 연구원 및 우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장려금 및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연구개발장려금은 방산물자의 창의적인 기술개발 촉진과 국방분야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수한 방산물자 및 이에 관한 핵심 기술부품을 개발한 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장려금으로, '78년 대통령 하사금을 기초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79년부터 작년 까지 12회에 걸쳐 295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57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군사전략,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 개발,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첨단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개발,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개량 및 개발, 기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을 달성한 자들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려금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격년제로 지급하던 것을 매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였다.

신청한 54개 과제에 참여한 1,293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국내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48개 과제 945명을 선정하였고, 이 선정된 과제에 대해 등급별로 3천만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총 10억 8천 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금번 수상한 48개 과제중 영예의 최우수 과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함정용 전자전 장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무인항공기 등 4개 과제가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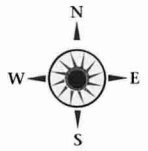
한편, 연구개발장려금 수여에 이어 방산업체 중에서 2002년 한 해 동안의 연구개발, 방산수출, 경영개선 등의 분야에서 그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6개 방산업체를 선정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영예의 대통령 표창에는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손익구조를 개선하여 '02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수상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방산제품(HTPB)의 고압반응 기술을 민수산업(HGB, 의약중간체)에 응용해 신약의 의약중간체 생산에 성공한 공로로 삼양화학공업(주)과, 방산수출 전문 조직을 운영하여 방산 물자 해외 시장 개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주)대우인터내셔널이 수상하였다.

국방부 장관 표창에는 첨단 방위산업에 집중투자하여 미래에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노력한 협진정밀(주)과, FRP 건조업체로 소해함(MSH), 기립탐색함(MHC), 고속경비정 및 단정 보조정을 건조 인도한 (주)강남, 기술개발투자 및 특히 민수분야 기술혁신으로 해외 신뢰도 증가 및 해외 영입의 활성화로 방산물자 수출 증강에 공로가 인정된 삼공물산(주)가 수상하였다.

국방부는 국방관련 연구원들의 연구의욕과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및 수출 위주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려금 지급제도 및 정부포상 수여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산학회, 방위산업정책포럼 개최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 주제로



제16회를 맞은 이 날 포럼은 박용득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구상희 한국외대 교수, 천길성 브레인체인 사장, 안효기 대우종합기계 방산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누었다.

박용득 국과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부는 국내개발 우선으로 기술축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방산업체는 업체주도 사업 확장에 따른 체계종합기술 능력과 전문·핵심 분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구축하며, 국과연은 연구개발 중점 영역을 재설

정하고 기반전력분야 이웃소싱을 확대하면서 국방부, 방산업체, 국과연이 합심하여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소요군이 요구하는 단기간, 고성능, 경제성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하는 방위산업정책포럼이 학회회원 및 軍, 정부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3일 조선히에서 조찬을 겸해 개최되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조찬 포럼 개최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주제로



지난 1월 2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 김홍열)가 주관한 조찬 포럼이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조찬 포럼은 이동복 명지대 교수가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근 야기되고 있는 핵심현안인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지나온 사건들을 되짚으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